

대학생들의 글쓰기 실태와 지도 방안

원진숙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본고는 대학생들의 글쓰기 실태를 글에 대한 분석과 글쓰기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작문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대학생들의 글쓰기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송기중 외(1985), 김은전(1986), 김균태 외(1990), 김동연(1992) 등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나 아직 글쓰기 과정의 실태 분석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다. 그러나 쓰기가 본질적으로 과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 행위이며 완성된 글 자체보다는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생들의 글쓰기 실태에 대한 분석은 결과물로서의 글에 대한 분석과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결과물을 생산해 내는가에 대한 분석이 병행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대학은 유능한 인재 양성 기능과 함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유용한 지식을 생산·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곳이다. 이 대학이라는 '학문적 담화 공동체(academic discourse community)'에서는 학생들에게 배운 지식을 충실하게 소화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탐구하고 논리화하여 그것을 보고서나 논문의 형식으로 엮어낼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을 요구한다. 이 글쓰기는 대학이라는 학문적 담화 공동체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을 자기화하고 새롭게 발견한 앞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전달하기 위

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정확성을 전제로 한다. 특히 지식을 탐구하는 배움의 과정에서 얻게 된 진지한 사유의 결과를 정리하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한 어휘와 어법에 맞는 문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글에서 정확한 문장보다는 틀린 문장 또는 딱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이는 문장, 빈약한 논리의 나열에 그치는 불명료한 문장들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문장들로는 독창적이거나 개성적인 생각을 전달할 수 없다. 만일 어휘나 구문이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전달에 별 무리가 없는 경우라면 대개 그 내용 자체가 상식적이거나 상투적인 수준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대학생들의 글에서 발견되는 부정확한 문장들은 막연하고 상투적인 수준에서 대충 생각하는 사고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1학년 학생 30명이 작문 과목 시간에 제출한 보고서 30편을 대상으로 하여 그 문장 실태를 분석해 보고 더 나아가 바람직한 작문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생들에게 부과된 글쓰기 과제는 “가장 최근에 작성한 보고서 3편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분석하되 자신이 주로 의지하는 글쓰기 전략을 좋은 전략과 나쁜 전략으로 나누어 평가해 보라.” 였는데 분석 대상으로 삼은 3편의 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총 120편이었다.

II 장에서는 대학생들의 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III 장에서는 비교적 능숙한 필자라고 판단되는 학생의 글과 미숙한 필자로 판단되는 학생의 글을 대상으로 글쓰기 과정과 실제적인 쓰기 전략면에서 어떤 차별성을 보이는지를 질적인 분석 방법론에 의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IV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작문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지도 방향을 결론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II. 대학생들의 글쓰기 실태 - 결과물로서의 글에 대한 분석

1. 띄어쓰기 / 맞춤법 등의 기계적인 문제

- (1) 내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여 글을 쓰는 지를 논하겠다.
- (2) 이러한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데 앞으로는 나의 생각을 글로 남겨서 정리해야겠다.
- (3) 내 글을 쓰던지 남의 글을 평가하던지 간에 지식은 글쓰기의 중요한 요소다.

학생들의 글에서 적지 않게 발견되는 띄어쓰기/ 맞춤법 등의 오류는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낱말과 조사, 조사와 어미 등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개별 형태소에 대한 문법적 지식의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가 주류를 이룬다.

2. 부적절한 어휘 사용

- (4) 내가 글을 쓰는 시간은 정상적이지 않다.
- (5) 한 학급당 정원을 조금만 늘인다면 부족한 선생님들의 부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6) 보통의 경우는 초고 쓰기에 글쓰기를 중단한다.

어휘 사용의 문제는 예문 (4)처럼 문맥에 꼭 들어맞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5)처럼 유사한 의미와 기능을 가진 어휘들을 중복해서 사용한 경우, (6)처럼 어휘의 의미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비슷하다 싶은 어휘를 대충 사용한 경우 등으로 정리된다.

3. 외래어의 남용과 현학적인 문투

- (7) 전세계의 어린이들은 이 시간에도 후기 산업사회의 논리 속에서 자신

의 고유한 벡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보다는 무력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공동화”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8) 루소는 교육계에 아동중심교육, 자연주의 교육으로 하나의 계보학을 형성하여 이후 칸트, 페스탈로찌, 프리벨 등에 사상적 소스를 제공한다.
- (9) 아직도 이 사회는 봉건제적 중핵으로서 여성의 독자적 바이오그래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문(7)-(9)는 생경한 외래어를 무비판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외래어의 남용 현상은 현학적인 자세로 글을 쓰는 학생들에게서 종종 발견된다.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에 상응하는 우리말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래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4. 주술 호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 (10) 나는 이번 글을 대체로 글쓰기의 습벽을 의식해 가면서 극복해 나간 사례이다.
- (11) 나는 글쓰기를 좋아하지만 남에게 보여지는 글로서의 부담감이 항상 존재한다.
- (12) 대중화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도시화, 획일화, 규격화 등으로 말미암아 지역의 특수성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사람들은 개성을 잃고 획일적인 것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생겼다.

위의 예문(10)-(12)는 한 문장 안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문장 유형은 학생들의 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비문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문장이 길어질 경우에 특히 자주 나타난다.

5. 필수성분의 생략

- (13)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 생활에 이용하고 적용시켜 보면서 그 지식들을 우리의 머리 속에 완전히 넣을 수 있다. 또 현실에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일석이조다.

- (14) 어느 회사 조직체를 들은 기억이 난다. 이 회사에서는 문서를 직접 가지고 오면 즉시 잘린다고 한다.
- (15) 인위적으로 단시일내에 바꾸려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위의 예문(13)은 주어가 생략됨으로써 서술어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경우이고, 예문(14)는 '잘린다'의 대상이 누구인지 드러나 있지 않아 문장의 뜻이 모호한 경우이다. 또 예문(15) 역시 '바꾸려면'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문장에 드러나 있지 않아 독자의 이해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이다. 장면 의존도가 높은 한국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생략 현상이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나는 개별언어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청·화자가 발화 맥락을 공유하는 입말이 아닌 글말 텍스트에서의 생략은 많은 주의를 요한다. 특히 문장에서 꼭 필요한 필수성분이 생략될 경우에 비문이 되기 쉽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6. 평행 구조의 오용

- (16) 항상 글쓰기 준비를 하루 전에 시작하는 게으름, 얼른 끝내려는 마음에 글에 소홀해지는 글에 대한 모독, 글을 쓴 행위에 대해 어떤 신성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 (17) 이는 “가장 쉬운 글이 가장 좋은 글이다.”라는 명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종종 나 역시 정확하게 의미를 알지 못했던 단지 사전과 기타 자료들을 통해 받아들인 어휘를 사용하다 보니 글의 흐름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었다.

위의 예문 (16)-(17)은 문장의 요소들이 통사·의미론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나타내는 평행 구조(parallelism)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예문 (16)의 경우는 게으름, 모독, 신성한 마음 등이 서로 대등한 구성을 이룰 수 없는 항목들임에도 이를 병치함으로 해서 문장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또 예문(17)의 경우는 ‘-(으)ㄹ 뿐만

아니라'로 이루어지는 문장의 전건과 후건이 대등한 구성을 이루지 못한 경우이다.

7. 단락 의식의 결여

(18) 그리고 앞서 말한 존 홀트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학습 능력을 기르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완전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겠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도록 학습 동기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예문 (18)은 단락의식이 아예 없어서 문장마다 들여쓰기를 한 경우이다. 단락이란 '사고의 단위'로서 그 단락의 주제를 집약하고 있는 주제문과 이를 보조해 주는 뒷받침문장들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단락의 구분은 독자로서 하여금 주제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지(topic shift marker)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예문처럼 단락의식 없이 문장마다 들여쓰기를 한 경우는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된다.

학생들의 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문제 유형 가운데 하나인 이 단락의식의 결여 현상은 위의 예문처럼 문장마다 별개의 단락처럼 들여쓰기를 하는 경우, 아예 글 한 편이 하나의 단락처럼 전혀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야 할 내용을 한 단락 안에 묶어 놓은 경우 등의 유형으로 정리된다.

8. 문체¹⁾상의 문제

1) 본고에서는 문체의 개념을 어느 특정 작가 또는 특정 텍스트가 언어 사용상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에서 어떤 가능성을 습관적·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형성되는 총체적 인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이 총체적 인상은 주로 문장의 구성 방식과 어휘 사용에 있어서의 선호도에 의해 두드러진다.

- (19) 나에게도 글쓰기 습벽이 있는데 모 작가랑 비슷한 것으로 글쓴 것을 제출하기 전까지 가능한 한 다른 일들을 모두 미루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 방은 금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린 채 어지럽혀져 있고 나의 몸 또한 ...(교수님! 이 사실을 우리 학우들에게 알리십 아니 되옵니다. please!)
- (20) 안타깝다. 이 글도 내가 처음 의도했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물론 예상을 못한 일은 아니다. 주저리주저리 이것저것 쓰다보니 결국 한심스런 내 생각들의 무질서한 나열같다. 난 글을 쓰며 밥을 먹을 운명은 아닌가 보다.

보고서의 문장은 대개 논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문체를 요구한다. 그러나 예문 (19)-(20)의 경우에는 감정적 의미가 강한 낱말이나 어구를 씀으로써 보고서에 적합한 문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신변잡기류의 문체적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위의 예문들에서 포착되는 또 다른 특기 사항은 문어체보다는 구어체에 가까운 문체적 특성이다. 최근 대학생들의 보고서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러한 구어체적 문체는 다분히 피시 통신 언어 등의 영향으로 입말과 글말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의 반영으로 보인다. 피시 통신 언어는 메시지를 컴퓨터 키보드를 통해서 문자 언어 형태로 입력시키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즉시 수신자에게 송신되는 피시 통신의 산물이다. 말의 속도와 키보드를 통한 문자 입력 속도와의 차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생략 및 축약 현상, 스마일 리라고 불리우는 독특한 기호체계로 특징지어지는 피시 통신 언어는 음성언어도 문자언어도 아닌 제3의 언어 유형으로 자리잡으면서 점차 대학생들의 보고서 문체까지 침투하여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9. 주제-구성 문제

(21) (가) 여느 개발도상국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한국정부도 관료제의 형태로서 짧은 기간 자국의 근대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다. 관료제는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나타나게 된 중앙집권적 운영체제이다. 그러나 지나친 위계 질서의 강조로 인한 권위주

의와 특권의식, 자기 담당 분야 이외의 일에 대한 무관심과 책임 전가, 구질서의 답습으로 인한 보수성과 무사안일, 문서에 의해 간접적으로 처리하는 데서 오는 비인간화 조장 등의 문제점은 관료제에 의한 또 다른 사고를 갖게 한다. 관료제에 대한 문제점들은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듯이 표면화되어 가고 있으며 관공서에서 직접 몸으로 경험을 하기도 한다. (나) 포항공대와 과기대 및 교수들의 회의는 기존의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모여 회의를 하는 방식에서 서서히 Net상에서 동영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회의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Net상에서는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는 업무를 볼 수 있다. 우리 정부조직은 정보화에 따라 Net상에서 토론을 하고 간접적이고 형식적인 업무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해야 할 것이다. 소위 선진국이라 일컫는 조직은 점점 탈중앙집권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지방 분권화시대로 조금씩 그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예문 (21)의 경우, (가) 부분에서는 관료제의 문제점을 주장하다가 단락의 구분도 없이 갑자기 (나) 부분에서 교수들이 공간을 초월하여 네트상에서 동영상을 통해 회의를 하고 여러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예시가 제시되고 이어서 탈중앙집권화되어 가고 있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지방 분권화시대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다. 적어도 이 예문만으로는 탈중앙집권화와 네트워크에 의한 정보화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 예문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주제 구성면에서 논지가 불분명하고 논거들이 부적절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글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빈약한 논리나 막연하고 상투적인 수준의 사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이 대학생들의 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띄어쓰기/ 맞춤법 등의 기계적인 문제, 부적절한 어휘 사용 문제, 외래어의 남용과 현학적인 문투, 주술 호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필수성분의 생략, 평행 구조의 오용, 단락의식의 결여, 문체상의 문제, 주제-구성 문제 등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대학생들의 문장 실태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 있음을 보

여준다. 이러한 실태의 원인으로는 우리말 사용 체계에 대한 정확한 규범적 지식 및 우리말에 대한 남다른 인식과 노력의 부족, 대학이라는 학문적 담화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담화양식에 대한 지식의 결여, 정확하고 논리적인 사고력의 부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막연하고 상투적인 생각으로 막연하게 글을 쓰는 풍조는 황폐한 문장과 빈약한 논리로 이루어진 글쓰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글쓰기 실태는 이제까지 우리 대학 작문 교육이 보다 새로운 방향에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Ⅲ. 대학생들의 글쓰기 실태 - 글쓰기 과정에 대한 분석

본장에서는 비교적 능숙한 필자라고 판단되는 학생의 글과 미숙한 필자로 판단되는 학생의 글이 실제적인 글쓰기 과정과 쓰기 전략면에서 어떤 차별성을 보이는지를 질적인 분석 방법론에 의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음은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분석해서 제출한 보고서 가운데 가려 뽑은 것으로 글 (가)와 (나)는 미숙한 필자라고 판단되는 학생의 것이고 글 (다), (라), (마)는 비교적 능숙한 필자라고 판단되는 학생의 것이다.²⁾

(가) 나는 글쓰기를 싫어하는 편이다. 난 대개 마감일이 되기까지 글을 쓰지 않고 일단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리며 버티는 편이다. 그러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이 되면 글쓰기에 들어간다. 이번에 내 글들을 다시 보면서 글쓰기 과정을 살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2) 본고에서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를 분류한 기준은 이미 여러 차례 제출한 바 있는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포트폴리오 평가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쓰기 포트폴리오 평가는 기존의 결과 중심의 평가와는 달리 자연스럽게 실제적인 쓰기 상황 맥락 안에서 학습자가 각기 다른 목적과 형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써 낸 여러 편의 글들을 대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쓰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 볼 때 단지 특정 주제와 장르의 글 한 편을 잘 썼다고 해서 다른 주제와 장르의 글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첫째, 일단 글을 시작하지만 '시작을 잘 하면 나머지 글도 술술 잘 풀릴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글의 첫 부분에 많은 공을 들인다. 그래서 글의 처음을 시작하기 힘들고 첫 부분을 써 놓은 상태에서 뒷부분은 영감을 기다리는 듯이 펜만 잡고 멍하게 있다. 둘째, 생활하는 중에 가끔 괜찮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메모를 해 두지 않아 글을 쓸 때는 '좋은 생각이 있었는데...있었는데...' 하며 괴로워한다. 셋째, 아는 내용을 글로 구성하는데 개요를 짜기보다는 생각나는 대로 계속 쓰기 때문에 글의 핵심에서 벗어날 때가 많다. 넷째, 무엇보다 글의 독자들(대부분 교수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솔직히 교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나의 뚜렷한 생각이 담기지 못하여 창의적이지 못한 글로 인해 실패할 때가 많다. (여기서 실패란 물론 나를 슬프게 하는 학점이다.)

(나) 나는 글을 쓰는 데에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편이다. 글도 고쳐서 쓴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힘들다. 내가 보기에 내 글쓰기의 문제점의 주 원인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바로 생각나는 대로 키보드를 두들겨서 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통신이나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져서 더더욱 그러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조리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쓰면서 고쳐가고 더 이상 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다. 나는 글을 쓸 때 앉은 자리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습관이 있다. 한 번 쓴 글을 가지고 분석하고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것을 상당히 귀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아무래도 이것은 내가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 나는 글을 쓸 때 영감에 의존한다거나 처음부터 완벽한 초고를 쓰려고 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이야깃거리를 찾거나 개요를 짜는 방법으로 글에 접근한다. 또 나는 글을 쓸 때 나름대로 일련의 과정에 의존해서 쓴다. 주제와 방향을 설정하고 개요를 짜고, 집필을 하고, 퇴고를 하는 것이 그 순서이다. 비록 남과 다르게 특별한 순서는 아니지만 이 순서를 따름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글을 쓸 수 있는 것 같다. 다음은 목표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적인 방향 설정과 관련있는

것으로 과제를 부과하신 교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여 그것을 주제 혹은 전체적인 글의 방향으로 삼아서 그 교수님의 의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글을 쓴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글쓰기의 준비 과정이 치밀하다는 것이다. 집필하기 전에 여러 번 내용을 첨가해 가면서 개요를 세움으로써 마지막에는 아주 자세한 개요를 세운다. 이 개요는 집필을 보다 수월하게 함으로써 집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주고 체계적인 집필을 가능하게 해 준다.

(라) 나는 글쓰기 과정을 대체로 즐기는 편이다. 일단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난 바로 시작한다. 그래서 마감기일에 좀 여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글쓰기 시간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 걸린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글도 근 2주일이 걸렸고, 사전 예비 독서까지 3-4주는 걸린 것 같다. 내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글을 쓰는 과정은 적어도 그 주제와 관련해서는 담론의 포로가 아닌 주체가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내가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소에 형성되어 있는 일상적 문제의식이다.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의식을 부화시키고 있느냐에 따라 글의 전개가 쉬워지는 것 같다. 나는 평소에 전략적으로 독서하고 독서 도중 눈에 띄는 구절을 정확히 기재하여 둬으로써 나중에 내 글 전개에서 강력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이번 글을 쓰는 데는 2주전부터 독서해 오던 프로이트 전집과 라캉, 울리히백 등의 사회학 서적이 든든한 지형으로 자리잡혀 있었다.

(마) 글쓰기 작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고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내 사고는 작업 구상 초기부터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한 가지 글의 중심 초점에 그 흐름이 모인다고 할 수 있다. <불을 찾아서> 감상문 쓰기에서는 사고 과정이 '원시인들의 사랑'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자기 소개서 쓰기에서는 '삶에 대한 진지함'을 중심 초점으로 설정해 놓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상하고 수집해 나갔다. 한 가지 확실한 중심 초점을 설정해 놓는다는 것은 글쓰기 작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고의 흐름이 그것을 중심으로 쉽고 명확하게 전개된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글쓰기 작업 습관과 관련해 내 강력한 전략은 메모하기와 자료 찾기, 초고 쓰기 등이다. 나는 일상 생활에 있어 메모하는 습관이 배어 있다. 내 가방 안과 책상 위에는 이곳저곳에서 뜯어 사용한 종이 조각들이 난무하다. 어쨌든 이렇게 툭툭이 마련된 메모들과 생각의 조각들을 모아 나는 초고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나는 손쉬운 글부터 어려운 글까지 모든 경우에 초고를 작성하는 또 다른 습성을 지녔다. 심지어 편지를 쓸 때에도 내겐 초고가 필요하며 가끔은 일기를 쓸 때도 초고를 작성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조차 한다. 엉성하고 빈약한 글이나 비문을 쓰고 싶지 않다는 욕심 때문일 것이다. 또 내가 종종 도서관이나 책방에 가는 이유는 글쓰기 작업과 연관성이 깊다. 그때 그때의 글쓰기 작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찾는 일이다. <불을 찾아서> 감상을 쓸 때는 이 작품과 이 작품의 감독인 장자끄 아노에 관해 교보문고에 있는 영화평론집을 전부 들쑤셔 놓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자료 찾기는 글쓰기에 있어 풍부한 사고 과정을 거치는 데에 도움을 준다.

1. 미숙한 필자의 쓰기 과정

글 (가), (나)는 미숙한 필자들이 지닌 일반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개 글쓰기를 싫어하는 미숙한 필자들은 계획하기 단계에 거의 시간 할애를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글쓰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글의 내용을 구상하여 개요를 작성하기보다는 막연하게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리면서 더 이상 글쓰기를 미룰 수 없는 그 시점까지 글쓰기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일단 글을 쓰기 시작할 때도 글에 대한 수사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담당 교수는 왜 이 과제를 부과했을까, 이 글을 읽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 독자는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을 기대할 것인가, 이 글을 쓰는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이 글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에 대한 수사적 문제에 대해 고려하기보다는 막연한 생각의 단편만을 자기 중심으로 쏟아낼 뿐이다.

일단 글쓰기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가 되면 첫 문장을 시작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 시행착오 전략에 의해 첫 문장을 쓰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가 하면 대번에 완벽한 초고를 써야 한다는 강박증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 자료 수집이나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메모없이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에만 의존해서 글을 쓸 수밖에 없다. 미숙한 필자들은 대개 글쓰기를 일련의 과정과 절차에 의해 수행하기보다는 글을 쓰는 데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서 앉은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중심으로 글을 완성해 버린다. 항상 시간에 쫓겨서 글쓰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글을 꼼꼼이 고쳐쓰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개 초고가 그대로 제출본이 된다.

요컨대 미숙한 필자는 글쓰기를 문제해결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앉은 자리에서 단번에 써버리는 일회적인 행위로 파악하기 때문에 계획하거나 고쳐쓰기 단계 없이 초고를 그대로 완성본으로 삼는다.

2. 능숙한 필자의 쓰기 과정

글 (다), (라), (마)는 능숙한 필자의 쓰기 과정과 전략이 미숙한 필자와 어떻게 차별성을 보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글쓰기를 즐기는 능숙한 필자들은 '영감에 의존한다거나 처음부터 완벽한 초고를 쓰려고 하기'보다는 글 쓰기 과정 자체를 일련의 목표지향적 활동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작업 구상 단계부터 나름대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글의 핵심적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고의 흐름을 전개해 나간다. 이들은 이렇게 일단 글쓰기의 주제와 방향이 잡히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찌감치 글쓰기 과정에 착수하여 계획하기 단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다. 주제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전략적으로 찾아서 읽고 이를 바탕으로 틈틈이 메모를 하고 개요를 작성한다. 머리 속에 있는 막연한 사고를 자료를 찾아서 읽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다.

능숙한 필자는 미숙한 필자와 달리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수사적 상황을 철저히 고려한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보인다. 과제를 부과한 담당 교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 글을 읽게 될 독자가 기대하는 바는 뭘까, 이 글을 쓰는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등

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의 가닥을 잡아 나간다.

능숙한 필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글을 완성해야 한다는 식의 완벽한 초고 쓰기 전략에 의지하지 않는다.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고쳐쓰기 단계를 염두에 두고 글에서 해야 할 이야기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단 초고 형태로 글을 쓴다. 미리 마련된 글의 개요와 메모에 의지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글이 좀처럼 원래 목표했던 중심 생각에서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능숙한 필자들은 계획하기 단계 못지 않게 고쳐쓰기 단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피어쓰기, 맞춤법 등의 기계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낱말이 적절한지 문장이 어법에 맞는지 단락을 중심으로 사고를 제대로 전개해 나갔는지 글의 내용적 통일성이 주제 구성과 관련되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정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는 쓰기 과정이나 쓰기 전략면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II장에서 분석한 결과물로서의 글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은 막연하고 상투적인 생각을 막연한 문장 형식으로 앉은 그 자리에서 쏟아내는 미숙한 필자들의 쓰기 과정과 전략의 산물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나 논문 양식은 대개 앉은 그 자리에서 손쉽게 쓰여질 수 있는 글이 아니라 일정 시간을 두고 치밀한 사고 과정과 논리화 과정을 요하는 텍스트 유형이다. 진지한 사유의 결과물로서의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자기화된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일련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대학생들의 글쓰기 실태를 결과적인 측면과 과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학 작문 교육의 방향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있어 온 대학에서의 작문 교육은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습자 변

인 및 작문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 중심의 교육만을 해 왔다. 그러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작문 교육은 대학이라는 학문적 담화 공동체라는 사회적 맥락 요인을 전제하지 않고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대학에서 굳이 작문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학습자로 하여금 대학이라는 학문적 담화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학 작문 교육의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이라는 학문적 담화 공동체에서는 문제를 발견하고 규정짓고 분석하기 위해서 또는 그 사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구체적 증거에 바탕을 둔 글을 쓴다. 이러한 글을 쓰기 위해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비판적 언어 사용 능력이 필요하다. 대학에서의 작문 교육은 바로 이 비판적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에서의 작문 교육은 이제까지 결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것에서 문제 해결 전략을 중심으로 한 과정 위주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글쓰기 과정은 목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과제로부터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고 이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탐색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작문할 내용을 발견·조직하고, 이 내용을 다시 논리적 언어로 설득력있게 표현하고, 또 자신이 쓰고 있는 글 또는 이미 쓴 글을 평가하고 고쳐쓰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제반 작문 행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고하는 방법과 그 과정을 다루는 고도의 문제해결능력이다.

셋째, 대학 작문 교육은 단순히 글쓰기 교육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기보다는 독서와 글쓰기, 토론과 글쓰기 등이 연계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독서와 토론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작문 프로그램은 본질적 교양 가치 추구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 소비자의 실용적 요구라는 이원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점차 전문화되어가는 지식 공간 속에서 그 독자적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권영민(1997). 『우리문장강의』. 신구문화사.
- 김군태 외(1990). 『대학생들의 국어사용실태조사 연구』. 한남대 어학연구소.
- 김동연(1992). 「대학생 문장의 비문에 대하여」. 『강남어문』 7집. 강남대 국어국문학과.
- 김병원 외(1998). 「언어 사고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1집. 포항공대 교양학부.
- 김은전(1986). 「대학생들의 작문의 실태와 그 바람직한 지도방안」. 『선청어문』 14·15.
- 박영순(1987). 「고교생들의 비문에 나타난 비문 연구」. 『한국어문교육』 2. 고대 국어교육학회.
- 송기중 외(1985). 『현대 국어 문장의 실태 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송현호(1995). 「대학교양국어국문학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국어국문학』 114.
- 원진숙(1995). 『논술교육론』. 박이정.
- 원진숙(1998). 「대학교양국어교육의 개선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 시고」. 『한국어교육』 13. 한국어문교육학회.
- 원진숙·황정현 역(1999). 『글쓰기의 문제해결적 전략』. 동문선.
- 원진숙(1999). 「쓰기 영역 평가의 생태학적 접근 - 대안적 평가 방법으로서의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99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학술발표회 자료집』.
- 이남호(1994). 「간결하고 정확한 한국어를 위하여」. 『세계의 문학』 가을호. 민음사.